

20세기 초 한국 문학의 장에 나타난 ‘문호 백년제’ 기획에 대한 고찰*

김 미 지**

[초 록]

1백년을 단위로 하여 어떤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일 즉 ‘백주년 기념’이라는 형식은 한국에서는 100여 년 남짓의 역사를 가진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글은 미디어와 글쓰기 형식 그리고 문학의 근대적 전환 또는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외래의 정보들 가운데서 백주년을 기념하는 ‘백년제’라는 형식에 주목하였다. 백주년 기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건과 사물 그리고 인물 등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위인이나 문인 등 인물의 생후 또는 사후 백년을 기념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 인물 가운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8년도 21세기 신규장각자료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근대문학, 서양 문학 수용, 해외문화파, 근대 매체, 문호, 백년제, 톨스토이, 괴테, 위고, 다산(정약용)

Modern Literature, Acceptance of Western Literature, the Group of Scholars on Foreign Literature, Modern Media, Literary Giants, Centenary, Tolstoy, Goethe, Hugo, Dasan (Jung Yakyong)

특히 서양의 작가들을 백년제라는 형식으로 소환해 온 양상을 검토하여 백년제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 변용되고 또 응용되면서 우리의 근대문화로 정착되어갔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20세기 초의 시점에서 한 세기 전이라는 것은 19세기 초가 될 것인데, 동아시아에서 이 시대(18세기 말~19세기 초)는 서양의 근대 특히 프랑크혁명과 미국독립,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서양의 근대를 학습하는 핵심적인 통로이자 원천이었다. 또한 백년제라는 기념의 방식은 1930년대 중반 우리 전통 인물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호출하는 데에도 적용되어 ‘다산 백년제’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났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각종 ‘백년제’는 서양식의 근대라는 것을 학습하고 실험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근대 사이의 관계 설정, 전통 인물의 근대적 재해석 등의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들어가며

1백년을 단위로 하여 어떤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일은 현재의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익숙한 일이 되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에 기념할 만한 한 세기(또는 수세기) 전의 인물이나 사건을 떠올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가 기획되는 것은 연례행사나 다름없어졌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2017년에는 이광수의 『무정』 발표 백주년을 기념하는 문학 학술행사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특히 러시아 혁명 백주년을 기념하는 목소리와 움직임 또한 이곳저곳에서 은근하게 터져 나왔다. 올해 2019년에도 3·1운동 백년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 사회단체, 학계 등의 준비가 물밑듯이 쏟아져 나올 것임이 진작부터 예고되어 있는 터이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탄생일 또는 서거일을 기념하고 그 나라 역사에 기입된 중요한 사건들을 현재에 다시 되새기며 기념하는 것은 꽤 유서가 깊은 일이다. 동

아시아의 왕조국가에서는 국왕과 국가와 관련된 대사(大事)를 기념하여 잔치, 과거시험 등이 시행되었는데, 그 기념의 단위는 주로 주갑(周甲), 즉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인 60년(120년, 180년, 240년 등)이었다. 동양에서 주갑 대신에 세기 즉 백년이라는 시간 단위가 도입된 것은 서양의 서력이 들어오고 이것이 음력(갑자)체제를 대체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¹⁾ 서양의 경우 백년 단위로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의례가 시작된 연원은 종교개혁 100년을 기념했던 1617년 즉 17세기로 본다.²⁾

그런데 이러한 역법 체제의 변화는 단지 60년 단위로 기념할 것을 백년으로 달리 계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³⁾ 동서양의 시간 기준, 세월을 헤아리는 단위가 일치하게 된 것은 사실상 동양이 기존의 시간관 또는 세월의 감각을 버리고 서구의 시간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서구의 문물, 제도, 사상, 문화의 수입이라는 것도 곧 이러한 시간 질서의 재편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근대의 후발주자들로 하여금 ‘동시대’라는 것을 경험하고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지어 사고하는 시대 감각⁴⁾, ‘세기말’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대한 이해도 그러하거니와, 서양의

-
- 1)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력이 채택된 것은 1896년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면서부터이다. 해방 이후에는 단기를 사용하다가 1961년 ‘연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력 기원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
 - 2) 오늘날 100주년 기념행사의 기원은 1617년 독일 작센 지방에서 1517년 루터가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못질한 것을 기념하는 전단지를 만든 것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이 종교전쟁의 불씨가 되었다고 본다(닐 맥그리거(2014), 강미경 역,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다산초당, p. 596 참조).
 - 3) 물론 동아시아에서 서력이 도입된 근대 초기(시간적으로는 20세기 초)에 그리고 지금도 아주 드물게는 ‘주갑’을 단위로 전통시대의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유교, (조선)왕조와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곤 했다. 예컨대 공자 사후 40주갑(1922), 우리글 8주갑(1926), 영조 탄신 4주갑(1934), 병자호란 5주갑(1936)과 같은 경우이다.
 - 4) 1910년 태어나 1937년에 사망한 시인 이상은 죽기 직전 시인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암만해도 나는 19세기와 20세기 틈바구니에 끼어 줄도하려 드는 무퇴한인 모양

낭만주의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이해 역시 18~9세기적인 문화나 20세기 초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는 닿을 수 없다.

근대라는 시대는 지구상의 온갖 현상들과 사건들을 급격히 통합시키고 보편적인 공동의 경험으로 전환시키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⁵⁾ 동아시아에서 이는 19세기 말로부터 그리고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새로운(근대화한) 미디어, 글쓰기(문학), 교육(제도) 등이 있다. 새로운 미디어 체제와 형식이 새로운 글쓰기를 낳고, 그 형식을 채울 콘텐츠들을 파생시켰다. 교육을 통해 문식력이 높아진 독자들은 전에 없던 신문 잡지라는 근대 매체를 통해 그 형식을 받아들이고 또 그에 걸맞은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면을 채우는 정보 가운데 상당량은 외부(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1883~4년 발행된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간행된 모든 ‘근대적인’ 매체들은 ‘외보’(外報)의 비중이 국내 기사를 압도할 정도였던 것이다.⁶⁾

이 글은 미디어와 글쓰기 형식 그리고 문학의 근대적 전환 또는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외래의 정보들 가운데서 백주년을 기념하는 ‘백년제’라는 형식에 주목하여,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방

이오. 완전히 20세기 사람이 되기에는 내 혈관에는 너무도 많은 19세기의 업숙한 도덕성의 피가 위협하듯이 흐르고 있소그려.”라고 적고 있다.

- 5) 20세기의 역사는 초국적이거나 단일하고 갈수록 통합되고 보편적인 세계를 창출한 지구가 단일한 작동단위로서 기능하게 된 시대이다(에릭 홉스봄(1997), 이용우 역,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上, 까치). 그리고 그러한 흐름의 시작은 제국주의 시대,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말부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한성순보』의 경우 지면의 70% 가량이 ‘각국근사’였는데, 출처가 된 월 기사(외국 신문)와의 시차가 두달 가량으로 매우 컸기 때문에 동시대성이나 시의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성순보』의 외신 보도 추이, 시차, 경향에 대해서는 김미지(2017),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들의 관계 고찰』, 『인문과학』 11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참조. 이후에 발행된 각종 근대매체들 즉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라 학회지들 역시 전보와 통신사를 통해 들어오는 잡다한 외신기사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하였고 빨라진 전보체계에 발맞추어 시차를 좁혀 나아갔다.

식으로 수용, 변용되고 또 응용되면서 우리의 근대문화로 정착되어갔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20세기 초의 시점에서 한 세기 전이라는 것은 19세기 초가 될 것인데, 동아시아에서 이 시대(18세기 말~19세기 초)는 서양의 근대문화 특히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 이후 서양의 근대를 학습하는 핵심적인 통로이자 원천이었다. 또한 20세기 초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서양의 근대를 만들어 간 이전 세기의 주역들을 그들의 본고장에서와 똑같이 동시에 기념하고 기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근대적인 것을 학습하고 또 실험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백년제’를 기념하기 시작한 이래 이 형식에 가장 걸맞으며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물(위인)의 탄생 및 서거와 관련한 것들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인물들 가운데 특히 ‘문호’의 백년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문호’(文豪)라는 말 자체가 근대적으로 재맥락화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호’라는 개념과 ‘백년제’라는 형식이 호출되는 방식을 각각 살피면서 이 둘이 결합하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근대 미디어와 근대문학이 고안한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문호 백년제’의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문호의 탄생 백년 또는 서거 백년을 기리는 온갖 활동들은 근대문학, 근대 작가를 그가 살았던 세기 즉 시대와 강하게 결부시켜 이해하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나의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의 행위는 한 세기 전의 작가를 현재적인 문학사의 맥락 속으로 소환시켜 그 역사적 의의를 재생산하는 데에도 매우 적절한 형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백여 년 전 18~19세기 서양의 소위 ‘문호’들을 ‘백년제’라는 형식으로 소환했던 상징적인 장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지난 세기가 근대적인 것 또는 근대문학을 학습해 나아갔던 과정에 한걸음 더 접근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20세기 초 미디어에 나타난 ‘백년제’의 양상과 특징

한국의 미디어에서 백년을 단위로 하여 특정한 날짜를 기념하는 백년 제라는 형식의 행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 특히 본격적으로는 1920년대의 일이다. 한국보다 일찍 서력기원을 쓰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천황 탄생 천오백년제, 도요토미나 도쿠가와와의 3백년제와 같은 행사를 일찍부터 흔히 시행했고, 이는 한국의 『대한매일신보』나 한일병합 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등에도 종종 여과 없이 보도되곤 했다. 또 전보 통신을 통해 서양의 온갖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매체의 외신(외보) 기사에 흔히 등장했던 소재 역시 서양 여기저기에서 거행된 ‘백년제’ 관련 기사들이었다. 예를 들어 전신 백주년(1887), 미국 발견 4백주년(1888), 프랑스혁명 백주년(1889) 등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해외에서 거행되었음을 알리는 기사들이다.⁷⁾ 이러한 기념의 방식은 일본에서 일상의 의례 또는 연례행사에 매우 빨리 스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⁸⁾ 먼 나라 소식으로서 서양의 ‘백년제’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인물, 도시, 神社, 開市 등의 수세기 역사성을 자랑하는 백년제들이 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식의 본산지는 역시 서양이었고, 1900년대에 일본에서 발간된 온갖 분야의 각종 잡지들(소년지, 외교지, 종교지, 법률지, 의학지)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기념행사들을 마치 우리도 역시 이를 기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양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그렇게 해서 활판발명 5백년제, 프러시아국왕 2백년제, 프러시아 건국 2백년제, 불란서민법 백

7) 1890년대에 발행된 일본 『관보』의 ‘외보’란에 이런 외신 기사들이 정보로써 제공되곤 했다. 예컨대 ‘米國發見四百年祭’는 외보 가운데서도 서반아 관련 기사로 나온 것이다(일본 『관보』, 1888. 2. 25).

8) 1876년 century의 역어로서 원래 중국에서 황제의 세대 세대의 기록을 의미했던 ‘世紀’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일본에서는 1882년경부터 이 개념이 일반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본다.

년제(1904), 돈키호테 출판 3백년제(1905)와 같이 알아도 몰라도 그만일 잡다한 정보들이 식자들과 독자들의 상식과 교양을 위해 지면 위에 등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백년제는 주로 한 세기 전의 오늘 그러니까 다른 세기이지만 같은 날짜를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간신문이 다루기에 매우 좋은 뉴스 소재였다. 잡지들도 유명한 역사 인물이나 문인들의 백주년을 알리는 정보들이나 이를 기념하는 기획 기사들을 종종 내놓긴 했지만, 데일리뉴스가 그 시의성이나 화제성에 있어서 선풍을 쥐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1920년 한국에서 민간 일간신문이 창간된 이후 서양과 일본에서 즐겨 취급하던 ‘백년제’ 관련 기사 역시 이들 지면에 흔히 등장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백년제(백주년)라는 형식은 지금도 꼭 그러하지만 매년 새로운 인물과 사건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1920년대의 시작을 장식한 백년제의 첫 주인공은 나폴레옹이었다. 1821년 5월 5일 사망한 나폴레옹 백년제의 소식이 꼭 백년 뒤 1921년 5월 5일자 『동아일보』에 나폴레옹의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실렸다. “금일 불란서에서 성대히 거행될” 나폴레옹 백년제의 기사는 한 달을 넘게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먼 타국의 오늘과 1921년 5월 5일자 신문을 읽고 있는 독자의 오늘을 일치시키며 그 엄청난 거리와 시차를 단숨에 뛰어넘게 만든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자.

일천팔백이십일년 오월오일! 곳 오날 일천구백이십일년 오월오일부터 만백년전 오전 다섯시사십분은 세계를 한입에 삼키라하든 불란서의 큰영웅 ‘나폴에온 일세’가 오십사세의 장년의 나히로서 멀리 남방으로 “아프리카”주의 서쪽 바다가운데에 잇는 외로운섬 “센트 헤레나”에서 최후의 긴한숨을 지우며 처량한 최후를 지은 날이다. (...) 금일 불란서에서는 전국이 ‘나폴에온’의 사후 백년제를 성

대히 거행할 터인데 “포수”원수는 ‘나폴레옹’ 묘전에서 기념연설을 한다더라.)⁹⁾

기사는 단순히 불란서에서 백년제가 거행됨을 예고하는 기사를 넘어서 나폴레옹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의 “치량한 최후”를 매우 감상적인 어조로 서술한다. 그리고 꼭 5일 뒤인 5월 10일자로 「奈翁百年祭 盛大舉行」이라는 단신 기사가 ‘파리五日發’ 전보를 인용하여 짙막하게 실림으로써 5일자의 뉴스는 닷새 만에 팩트로서 다시 전달된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지구촌의 사건사고가 공유되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외신보도는 교통 통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었음에도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¹⁰⁾ 5일의 시차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에 탄생 또는 서거한 인물의 ‘백년제’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일생을 상식 또는 정보의 차원에서 간략히 요약 정리해주는 형식은 매우 초보적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신 ‘받아쓰기’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뉴스이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동시에 어렵פות이나마 실감할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한 외래의 정보, 외국 사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20년대와 30년대 내내 매년 이러한 백년제 행사 관련 소식들은 꾸준히 이어지는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단지 ‘날짜’로서 동시성을 보장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백년제’를 보도 또는 기념하는 양상과 그 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표는 1920년대와 30년대 신문 잡지에서 ‘백년제’의 주인공으로 호명된 인물과 사건을

9) 「五月五日(오월오일) ◇ 奈翁百年祭」 『동아일보』, 1921. 5. 5.

10) 『한성순보』와 원 출처 사이의 시차는 보통 2달이 넘었는데 20세기 들어서 그 갭은 현격히 줄어든다. 1900년 경 무렵 경성-동경-상해를 잇는 우편선의 순환에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박정규(1997), 『『독립신문』 외신기사의 뉴스원과 속보성 연구』, 『사회과학논총』 17,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참조.

연도별로 정리하고 관련 기사의 게재지면과 게재 날짜를 명시한 것이다.

[표 1] 20세기 초 신문잡지의 ‘백년제’ 기사에 등장한 인물과 사건

연도	인물	관련 지면 및 게재 날짜	사건
1910	아브라함 링컨 ¹¹⁾	『소년』 1910. 1	
1921	나폴레옹	『동아일보』 1921. 5. 5, 10 『조선일보』 1921. 5. 11~1921. 5. 15 ¹²⁾	
	도스토예프스키*	『동아일보』 1921. 12. 1	
1922			브라질 건국
1924	수운 최재우	『조선일보』 1924. 10. 28, 29	천도교
	바이런*	『동아일보』 1922. 4. 19 『時代日報』 1924. 4. 19	
1926	페네스크 (청진기 발명가)	『동아일보』 1926. 12. 17 『조선일보』 1926. 12. 16	
	벤토벤	『동아일보』 1927. 2. 13, 2. 22, 3. 26 『조선일보』 1927. 3. 26, 4. 1~2 『每日申報』 1927. 3. 26	
1927	빌헬름 하우프*	『동아일보』 1927. 11. 22	
	페스탈로치	『中外日報』 1926. 11. 22, 1927. 2. 17 『동아일보』 1927. 2. 25	
	해일 최시형	『每日申報』 1926. 8. 10 『조선일보』 1927. 3. 20	
	트로신겐시 (하모니카 발명가)	『조선일보』 1927. 11. 26	
	톨스토이*	『동아일보』 1928. 9. 3, 11. 1 『조선일보』 1927. 6. 13, 6. 16~17, 1928. 9. 21~25 ¹³⁾ 『每日申報』 1928. 9. 1, 4	
1928	입센*	『동아일보』 1928. 4. 1~10 『조선일보』 1928. 3. 20~1928. 3. 23 ¹⁴⁾ 『每日申報』 1927. 5. 23 『동광』 제14호, 1927. 6. 1 ¹⁵⁾	
	블레이크*	『동아일보』 1928. 4. 1~10 ¹⁶⁾	

년도	인물	관련 지면 및 게재 날짜	사건
1928	고리키*(탄생 60년)	『동아일보』 1928. 9. 15	
	슈베르트	『동아일보』 1928. 12. 13 『每日申報』 1928. 12. 13	
1930	요세푸 카트나니* ¹⁷⁾	『조선일보』 1930. 8. 12	
	요한 케플러 (3백년)	『조선일보』 1930. 10. 23	
1931	헤겔	『동아일보』 1931. 11. 14~17 ¹⁸⁾ 『조선일보』 1931. 11. 12 『신흥』 5호, 1931. 7. 5	런던교
			천주교 포교
1932	괴테*	『每日申報』 1932. 3. 21, 4. 17 『동아일보』 1932. 1. 15, 3. 22(전면특집) ~4. 2, 4. 19 『조선일보』 1931. 10. 3, 1932. 3. 22 (전면특집)-25 『문예월간』 2(2), 1932. 3(괴테 특집)	
		스피노자	『동아일보』 1932. 11. 25
		워싱턴(2백년)	『동아일보』 1932. 2. 23~28 ¹⁹⁾
1933	노벨	『동아일보』 1933. 11. 13 『朝鮮中央日報』 1933. 11. 13	
	투르게네프* (사후 50년)	『동아일보』 1933. 8. 20(특집), 23 『조선일보』 1933. 8. 22(특집)-26	
1934	마크 트웨인*	『동아일보』 1934. 7. 29-8. 2, 1935. 6. 1, 15 『朝鮮中央日報』 1934. 11. 30, 12. 2	멜버른 식민
	멘델(사후 50년)	『동아일보』 1934. 9. 5	루터 성서번역(5백년)
1935	다산 정약용	『동아일보』 1935. 7. 16 『조선일보』 1935. 7. 16 『신조선』 12호, 1935. 8 ²⁰⁾	
	빅토르 위고* (사후 50년)	『동아일보』 1935. 6. 1(전면특집) 『조선일보』 1935. 5. 23(특집) ²¹⁾	

년도	인물	관련 지면 및 게재 날짜	사건
1935	찰스 램*	『朝鮮中央日報』 1934. 8. 3 『동아일보』 1935. 2. 3 『조선일보』 1935. 2. 3	
1936	제임스 와트	『동아일보』 1936. 1. 26	독일철도
	에라스무스 (4백년)	『조선일보』 1936. 8. 5	칼빈 종교개혁 (4백년)
			불란서 국가
			하버드대 창립(3백년)
1937			개선문
	루드비히 비르네	『동아일보』 1937. 8. 18~19	스트라디바리제조 (2백년)
	푸시킨*	『동아일보』 1935. 1. 23 『조선일보』 1935. 9. 13, 12. 18 『삼천리』 9 (5), 1937. 10	프뢰벨 유치원 창업
	울곡(4백년)	『每日申報』 1937. 7. 29	카메라 발명
			데카르트 ‘방법론’ 출간 (3백년)
		백림시(7백년)	
1938	비제	『동아일보』 1938. 10. 23~27 ²²⁾	
1939	쎬잔	『동아일보』 1939. 3. 30~4. 7 ²³⁾	
1940	에밀졸라*	『동아일보』 1940. 4. 11, 12 ²⁴⁾	활판술발명 (5백년)
	파가니니	『조선일보』 1940. 1. 18	
	차이코프스키	『동아일보』 1940. 5. 18~26, 6. 9	

11) 최남선의 「아브라함 린커언 백년기념」은 그의 생애를 기리고 칭송하는 장문의 창가 가사이다. 최남선은 1910년 톨스토이 서거에 맞춰 「톨스토이 선생을 곡함」이라는 가사도 지은 바 있다(『소년』, 1910. 12).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40여 명의 인물 가운데 가장 다수인 15명(*표시)이 주로 18~19세기를 풍미한 서양의 문인(작가)이며 예술가(화가 음악가) 7명, 철학 사상(종교)가 9명, 과학자 5명 등이다. 한편 인물이 아닌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백년제의 경우 활판술 발명, 카메라 발명,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출간과 같은 세계사적인 사건도 있긴 하지만 주로 브라질 건국, 불란서 국가(國歌) 제정, 하모니카 제조 백년과 같이 잡학 상식 차원의 서양 뉴스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으로는 다산과 율곡 두 명의 이름만이 보이는데, 이는 일

-
- 12) 「那翁逝世後 1백년」(전5회), 『조선일보』, 1921. 5. 11~1921. 5. 15.
 - 13) 一記者, 「杜翁의生涯와藝術: 그의 誕生百年紀念을機會로 하여」(全5回), 『조선일보』, 1928. 9. 21~25.
 - 14) 「3월 10일 諾威에 거행되는 입센 1백년제」, 『조선일보』, 1928. 3. 20; AZ生, 「입센의 일생. 1백년제에 임하여」(전2회) (1)~(2), 『조선일보』, 1928. 3. 20~1928. 3. 23.
 - 15) 백민, 「眞理에 徹底를說한 놀웨의 大詩人, 百年祭를當한 헨릭 입센」, 『동광』 제14호, 1927. 6. 1.
 - 16) 「브레이크死後百年祭 입센誕生百年祭」(1)~(9), 『동아일보』 1928. 4. 1~10.
 - 17) 요제프 키토너는 19세기 헝가리의 극작가로 헝가리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며 『반크 반』 등의 작품이 있다.
 - 18) 「百年祭를當하여[헤겔과 現代」(1)~(3), 『동아일보』, 1931. 11. 14~17; 「헤겔百年祭 紀念大講演」, 『동아일보』, 1931. 11. 14; 「헤겔백년제기념 강연회」, 『조선일보』, 1931. 11. 12.
 - 19) 白樂濬, 「今日의 「와싱턴」 誕生 二百年祭를當하여」(1)~(8), 『동아일보』. 1932. 2. 23~28.
 - 20) 백남운, 「丁茶山百年祭의 歷史的 意義」, 『신조선』 12, 1935. 8.
 - 21) 이광수, 「유고오에 대한 회상 — 유고오 사후 오십년제에 —」; 이현구, 「빅톨유고오의 생애와 예술」, 이원조, 「불문학사상의 유고오의 지위」, 『조선일보』 1935. 5. 23.
 - 22) 「베제와카르멘 그의 誕生百年祭를 앞두고」(상·중·하), 『동아일보』, 1938. 10. 23~27.
 - 23) 「쉴잔의 生活와 藝術 그의 生後百年祭를當하여」(1)~(4), 『동아일보』, 1939. 3. 30~4. 7.
 - 24) 「에밀졸라의 回想 그 生誕百年을當하여」(1)~(2), 『동아일보』, 1940. 4. 11, 12.

본의 경우 외국 인물들뿐만 아니라 자국의 인물들(정치가, 문인, 학자들)을 기념하는 백년제도 활발하게 기획되고 실시되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물론 당시 식민지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과거 전통 시대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기리고 소환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서양 중심적인 편향성이 두드러진다. 이 외래의 형식이 자국의 역사 문화에 적용되고 체화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표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백년제 관련 뉴스들 가운데에도 단발성 기사들과 연속기사가 나뉜다는 점이다. 케플러, 멘델, 와트, 요세프 카트나 등의 경우처럼 백주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환기하는 단발성 기사들은 대체로 ‘해외 소식’, ‘해외문예 소개’ 등의 ‘외래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 여러 매체에서 여러 날짜에 걸쳐 등장하는 나폴레옹, 베토벤, 톨스토이, 입센, 블레이크, 헤겔, 괴테, 워싱턴, 투르게네프, 마크 트웨인, 정약용, 위고, 램, 푸시킨 등의 기사들은 백주년을 기회로 하여 그의 생애, 예술과 사상을 여러 면에서 조명하는 특집 기사 또는 특집 지면으로 꾸며진 경우이다. 이는 곧 이 외래의 것, 외래의 형식을 그저 우리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저들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백년제’라는 형식의 기획과 특집으로 무엇을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 및 호명하고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다음 장에서는 ‘백년제’의 가장 주요한 호명의 대상이자 당시 문화 및 미디어의 장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문호’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호’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정착되어 나아갔는지를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3. ‘문호(文豪)’ 개념의 정립 과정에 나타난 근대문학 장의 논리

탄생 또는 서거 백주년을 기념할 만한 서양의 작가들 앞에 붙은 공통적인 수식어는 ‘문호’ 또는 ‘대문호’라는 말이었다. 작가, 소설가, 시인이라는 일반 명칭이 담을 수 없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한문 문화권에서는 ‘詩傑’, ‘文雄’과 같은 표현이 있었고, ‘詩文豪放, 詩文豪健, 詩文豪達’과 같이 스승이나 동료의 글을 칭송하기 위해 서술적인 용법으로 많이 쓰였다.²⁵⁾ 이는 마치 문명(文明)이라는 말이 ‘문을 밝히다’와 같은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이던 것이 근대에 들어 ‘civilization’의 역어로 선택되고 이전의 개념에서부터 탈맥락화하여 새로운 의미로 전유 및 통용되기 시작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20세기 초에 다시 호출된 ‘문호’ 또는 ‘대문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흔히 쓰이지 않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단어였고 특히 자국 문인들에게 쓰이는 예가 흔치 않았다. 서양의 근대 문인·사상가들과 동일한 반열에서 자국의 인물들을 ‘문호’의 범주 안에 적극 편입시켰던 일본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1893년부터 수년에 걸쳐 『十二文豪, the twelve men of letters』 시리즈를 속속 발간했는데(추후에 12권 이외에 호외로 5집을 추가하여 총 17권), 이 가운데 17~18세기 에도시대 일본의 문인·사상가 다섯 명이 엄선된 서양

25) 19세기 이후 문집에서 이덕형, 박지원 등을 大文豪로 칭하는 예가 있으나 드문 편이다. 중국의 구양수, 소식, 소철, 유종원, 한유, 백거이 등은 ‘詩傑’, ‘文豪’, ‘文雄’으로 칭해졌다. 반면 20세기 들어 쓰인 윤양 김윤식의 『윤양집(윤양속집)』(1914, 1930)에는 ‘문호’라는 말이 일반적인 ‘문인’, ‘문우’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어 특징적이다. “到處文豪歡相迎 이르는 곳마다 문호들이 기뻐하며 맞아주어 / 歷覽麗都與箕城 고려 도읍과 평양 두루 유람하였네”(김윤식(2014), 이지양 역, 『題鄭素石 又民 一見錄後』, 『윤양속집』 제1권, 한국고전종합DB) “海內文豪歷數來 나라 안의 문호를 낱날이 살펴보면 / 鄧林豈少一凡材 등림엔들 어찌 평범한 나무 없겠는가”(김윤식(2014), 이지양 역, 『謝教育會祝賀筵』, 『윤양속집』 제1권, 한국고전종합DB).

각국의 문호와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다.²⁶⁾ 현재(근대 이후) 쓰이는 바와 같이 시·소설·극 등의 각 장르에서 ‘세계적인 작가’라는 의미의 ‘문호’(literary giants) 개념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문사(문덕이 뛰어난 학자이자 사상가)라는 개념이 이 기획물에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교적 일관성도 나타나는데 서양의 문호들은 예외 없이 모두 18~19세기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초에 어떤 이들이 이러한 명칭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서양에서 각국(어)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을 관용적으로 ‘영국 문호’, ‘불국 문호’, ‘노국 문호’ 등으로 칭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본 문호, 중국 문호라는 말은 거의 찾기 힘들며 『조선소설사』를 집필한 『동아일보』에 1930~31년 연재) 김태준이 유독 ‘조선 문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이채로운 경우이다.²⁷⁾ ‘문명’의 수준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서양식의 개화와 개조를 이루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당시 한 신문 1면 사설은, 조선에 “세계적 名價를 획득할” 사상이나 저작이 과연 있느냐를 물으며 “영국문호 카라일(-칼라일)”이 “전 인도를 포기할지언정 일 쉘스피어문호를 버리지 못할 것을 절규”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상기시킨다.²⁸⁾ 여기서 ‘세계적’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같은 맥락에서 파인 김동환이 취공(鷲公)이라는 필명으로 쓴 「文學革命의 機運」²⁹⁾이라는 글을 보자. 그는 이 글에서 “폴란드의 애국시인 쉥

26) 1호부터 12호까지 순서대로 칼라일(1795-1881), 매콜리(1800-1859), 오구 소라이(1666-1728), 워즈워드(1770-1859), 괴테(1749-1832), 에머슨(1803-1882), 치카마츠 문자에몽(1653-1725), 아라이 하쿠세키(1657-1725), 위고(1802-1885), 톨스토이(1828-1910), 라이 산요(1780-1832), 다키자와 바킨(1767-1848)이고 이후 호외로 앤드류 존슨(1865-1869), 실러(1759-1805), 바이런(1788-1824), 셸리(1792-1822),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660?-720?) 다섯 권을 추가하였다.

27) 김태준이 ‘문호’의 칭호를 붙인 인물은 김대문, 최치원, 박지원 등이다.

28) 「학자의 권위를 생각한다」, 『동아일보』, 1923. 6. 24.

비웁치(또는 썩그웁치)³⁰⁾”, “독일혼의 찬미자 궤테(-괴테)”, “위대한 애국혼의 소유자 빠이론(-바이런)”을 그 애국혼으로 인해 곧 ‘세계적인 문호’가 된 이들로 호명하며 “조선에도 이러한 위대한 작가가 (...) 일인의 썩끼웁치와 일인의 궤테와 일인의 빠이론이 업숨을 슬퍼하지 아니할수 업다”라고 탄식한다. 이상의 글들이 전제하는 것은 국민국가와 국어 즉 자국어 문학이다. 여기서 조선문학이란 당연히 한글문학을 말하는 것이며, 전통시대의 한문으로 된 글과 서적은 완전히 논의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문학, 근대 조선어로 된 문학이어야 한다. 조선에 세계적 문학이 없다는 것은 이제 막 발흥한 조선어 문학의 역사가 매우 짧고 조선어문으로 기록된 대저술이나 걸작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 김동환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문호란 곧 자국의 국민문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18~19세기의 문학인들이었다. 셰익스피어도 단테도 서양의 대문호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들 곧 ‘근대문호’로 손꼽힌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전 세기의 19세기 작가들이었다. 실제로 1920~30년대에 앞서 제시한 표에 나타난 ‘백년제’(탄생 또는 사후)의 주인공들 즉 도스토예프스키, 바이런, 하우스, 블레이크, 입센, 톨스토이, 고리키, 괴테, 푸시킨, 마크 트웨인, 찰스 램, 빅토르 위고, 투르게네프, 에밀 졸라 이외에도 당시 신문잡지 지면을 통해 각국의 문호로 소개된 이들은 토마스 만, 토마스 하디, 버나드 쇼, 아나톨 프랑스, 버트런드 러셀, 로맹 롤랑, 오스카 와일드, 앙드레 지드, 체홉, 예이츠, H. G. 웰스 등등 예외 없이 19세기에 태

29) 『동아일보』, 1924. 10. 13. 파인은 이 글의 결론에서 조선에서 발흥하기 시작한 근대 문학이 ‘국민성을 지도한다는 큰일’을 위해 시엔키에비치가 부르짖은 “불과 칼을 갖고서” 임해야 함을 주장한다.

30) 헨리크 시엔키에비치(1846-1916)는 『쿠오바디스』로 19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소설가)이다.

어나 19세기를 풍미한 또는 20세기 들어서 당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문호’라는 말은 한국 문학의 장에서 서양 문학을 수입하고 수용하고 과정에서 특별히 선별된 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우선 ‘18~19세기에 자국 국민문학의 성립과 확장에 기여한 이들’을 우리 근대문학의 롤 모델로서 ‘문호’로 지칭하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는 ‘조선 근대문학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적인(서양의) 것을 소환하는 방식이며 특히 그 외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향성 또는 목적성을 파열시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례로 『별건곤』이나 『삼천리』와 같은 상업대중지나 종합잡지에서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경구(警句)나 격언집을 종종 많은 지면을 써서 소개했는데, 여기서 ‘세계문호’라는 범주 또는 용어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의 작가들만이 아니라 서양의 위인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통틀어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크게 확대된다.³¹⁾ ‘문호’ 개념이 전통시대의 ‘문사’에서부터 ‘근대 작가’로 옮겨가고 또 다시 ‘위인’이라는 의미로 통속화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상업 대중잡지가 추구했던 또 다른 근대문학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1930년대 후반 대표적인 종합잡지인 『삼천리』가 서양의 작가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문호’라는 말을 중국과 조선의 문인들로 이례적으로 확대한 것과는 궤를 같이 한다. 『삼천리』는 ‘세계문호강좌’, ‘우리 근대문호’와 같은 기획으로 중국의 당대(唐代) 시인들과 우리의 조선시대 문인들을 적극 호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1) ‘세계문호’에는 베이컨, 칼라일, 에머슨, 마르크스, 니체 등 서양의 사상가나 철학자들도 모두 포함되곤 했으며(『世界文豪警句集』, 『별건곤』 25~33호, 1930년 1~9월호 연재), 당대 외국의 유명인사, 위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文豪를 만난 印象』(회고 수기), 『삼천리』 8 (6), 1936. 6).

世界文豪講座(三千里文藝講座)(1936)

- 양백화, 이백과 두보³²⁾
- 月灘, 詩聖 白樂天 — 그의 생애와 예술³³⁾

近代의 우리 文豪³⁴⁾(1936)

- 玄相允, 李朝文學과 金農巖
- 安在鴻, 茶山의 思想과 文章
- 柳光烈, 菊初 李人植氏의 作品

盛唐 時代의 三文豪³⁵⁾(1940)

- 金億, 「白樂天의 文章과 人物」
- 李秉岐, 「李太白의 生涯와 文章」
- 朴鍾和, 「杜子美의 一生」

조선과 중국의 전통시대 문인들을 ‘문호’로 호출하는 것은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서양 작가 특히 19세기 이래 근대 작가에게만 허락되었다시피 한 ‘문호’라는 말의 용법을 확장하는 것, 또 하나는 상업주의 저널리즘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 말을 통속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1930년대 후반 당대의 인기 작가 이광수를 ‘조선의 문호’(『삼천리』, 1935년 8월호 ‘광고’)로 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³⁶⁾ 그렇다면 1930년대 중반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게 된 연원과 맥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앞에서 먼저 살펴본 ‘백년제’라는 형식의 정착 과정 특히 1920~30년대 한국 근대문학장에서 ‘문호’와 ‘백년제’가 결합되는 양상과 관련이

32) 「世界文豪講座」(1), 『삼천리』 8 (2), 1936. 1.

33) 「世界文豪講座」 (5), (7), 『삼천리』, 1936. 4. 8.

34) 「近代의 우리 文豪」, 『삼천리』 8 (4), 1936. 4.

35) 「盛唐 時代의 三文豪」, 『삼천리』 12 (6), 1940. 6.

36) 이는 ‘문학 저널리즘’이 행한 마케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박숙자(2012), 『속물 교양의 탄생』, 푸른역사, pp. 241~2 참조).

있다고 본다. 이제 1930년대를 전후하여 당시 문학 장을 주도했던 문예의 담당자들과 미디어가 상호작용을 통해 ‘백년제’라는 형식 혹은 사건을 어떻게 전유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문호 백년제’라는 기획과 조선적 전유의 문제

풍성한 근대 문화의 19세기, 적극적으로 재발견 및 재조명되어야 할 19세기는 20세기 들어 각국에서 백년제라는 연례행사가 기획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역이기도 하다. 즉 19세기의 무엇이 20세기로 하여금 그것을 불러내도록 촉발했다기보다는 20세기적인 필요가 19세기를 강하게 소환해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이자 기획을 당시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험해보고자 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20년대 후반 저널리즘에 대거 진출한 소위 ‘해외문화파’의 외국문학 ‘전문가’들이었다.

해외문화파란 주로 일본 대학에서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을 공부하고 주로 1928~29년 경 귀국한 정인섭(영문학), 이하윤(영문학), 김진섭(독문학), 이현구(불문학), 함대훈(노문학), 김광섭(영문학), 서항석(독문학), 박용철(독문학), 김삼규(독문학), 조희순(독문학) 등을 일컫는다.³⁷⁾ 이들은 노골적으로 ‘빈약한 조선문학-위대한 서양문학’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거나, 의역과 중역 위주였던 조선의 기존 번역 수준을 공격하면서 문단에 등장하자마자 적잖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³⁸⁾ 그런데 “外國냄새나는 쉼

37) 이들 동경 유학생들은 1926년 연구 모임을 가지며 ‘외국문학연구회’를 결성, 잡지 『해외문학』을 1927년 1월 발간했다(2호로 중간). 그리고 이들은 1929년 전후 귀국하여 『동아일보』 등 신문지면에 외국문학 소개 및 비평을 활발히 게재하면서 우리 문단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극예술연구회』, 『시문학』을 발간하기도 했다(정인섭(1982), 「해외문화파를 전후한 외국문학의 수용」, 『광장』 111; 이혜령(2008), 「『동아일보』와 외국문학, 해외문화파와 미디어」, 『한국문학연구』 34).

怪한 文章”, “母國語, 朝鮮文學에 對하여는 한개 非文學”³⁹⁾ 운운의 혹독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론 지면을 등에 업은 채 곳곳이 전개하고자 한 활동은 외국문학의 ‘제대로 된’ 소개 및 보급이었다. 그리고 서양에서 유래한 ‘센티너리’(centenary) 즉 ‘문화 백년제’는 이러한 서양 문학 소개 및 보급을 위한 여러 방편들 즉 번역, 해설, 문학의 밤, 강연회 가운데 하나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적인 행사로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앞선 서양이나 일본 문단과 유사하게 우리도 실행해야 함을 역설한 영문학자 정인섭의 글을 인용해 본다.

나의 기억으로서는 문화의 사상예술에 대한 문화운동으로서 백년제를 구체화하고 그리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가능의 범위내에서 문예사상에 관심시킨 적이 재래에 잇서서는 넘우나 희소한 소식이 었다는 것을 늦기는 동시에 금반의 두옹과 아울러 ‘고리키’ 기억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유기적 관계내지 조직적 연결에서 그를 기념하얏다는 것분을 느낀다. “민중으로 하여금 문학내지 사상예술에 관심시키라! 그리하여 그 효과를 보자!” 하는 것은 ‘입센’ 기념 때나 ‘브레이크’ 또는 ‘로셋트’의 추억에 잇서서는 나의 항상 주장한 바 이로되 금차의 기회에 그것이 다소현실화되어 9월 10일을 전후하여 동아일보지상에서 외국문학연구회 이하운씨의 두옹백년기념의 글을 보얏고 또 조선에서는 너무나 드물게 보는 문학문제의 사설에의 진출 ‘톨스토이 백년제’의 의의가 신문기관으로서의 종합적문화운동의 일익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얏스며 중외일보 지상에서는 ‘레닌’의 두옹론이 역출되었고 이선근씨의 ‘고리키 육십년’에 대한 소감과 김온씨의 두옹에 대한 ‘라디오’ 기념방송이외에 동회에서 연구회와 좌담회가 이서 더욱이 ‘고리키’작 ‘나그네’의 라디오극 방송이 잇섯다. (...) 물론 민중에게 효과의 반영을 크게 기대할 수는

38) 김억-양주동과의 번역 논쟁, 임화-송영 등 카프 비평가들과의 논쟁 등이 있다.

39) 임화(1936), 「해외문학파의 의의」, 『비판』 4 (4), p. 117.

업다하야도 이러는 가운데 무엇이 형성되어가는 외국의 예를 생각 하면 또한 의미 깊은 사건이라 볼수 잇을 것이다.⁴⁰⁾

杜翁(톨스토이) 탄생 백년을 맞이하여 영문학자로서 沙翁(셰익스피어)과 비교하는 글을 장장 12회에 걸쳐 연재한 정인섭은 문호의 백년제를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접근한다. 즉 “민중으로 하여금 문예사상에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서양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다더라’ 하는 단순한 뉴스 정보 나열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유기적 관계 내지 조직적 연결에서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소기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는 1928년 조선에서 이루어진 톨스토이 백년제가 비로소 ‘유기적 조직적’ 기념에 값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내보이고 있다. 1928년 9월 10일 톨스토이 탄생 백년을 기해서 전문가의 소개 및 해설, 신문 사설, 사진 기사, 기념 좌담, 기념 방송, 러시아 영사의 글 번역 소개, 모스크바에서 거행된 백년제 소식 등이 잇따라 ‘외국문학연구회’ 구성원들의 활약



[그림 1] 톨스토이 생탄백년제.



[그림 2] 모스크바의 두옹백년제.

40) 정인섭(1928), 「두옹과 사옹극(12) — ‘센타-너리’를 마치고」, 『동아일보』, 1928. 10. 6.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1928년 당시 『동아일보』 지상에 소개된 톨스토이 탄생 백년 관련 글과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 이하윤, 「톨스토이 탄생백년」 (1), (2), 『동아일보』, 1928. 9. 2~3.
- 「톨스토이 생탄 백년기념」(사설), 『동아일보』, 1928. 9. 10.
- 「톨스토이 생탄백년제」, 『동아일보』, 1928. 9. 10.
- 「외국문학회의 杜翁追憶坐談(두옹추억좌담) 십일 카카듀에서」, 『동아일보』, 1928. 9. 13.
- 「杜翁(두옹)과 『고-리키』 生誕紀念放送(생탄기념방송)」, 『동아일보』, 1928. 9. 13.
- 치차엠펜(경성주재노동총영사), 김동진 역, 「톨스토이觀」 (1), (2), 『동아일보』, 1928. 9. 19~20.
- 「『모스크바』의 杜翁百年祭(두옹백년제)」, 『동아일보』, 1928. 11. 1.

정인섭은 이러한 기념행사들이 얼마만큼 큰 문화운동의 효과를 가져 올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민중들 속에서 “(문예에 대한-인용자) 무엇이 형성되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내보인다.

외국문학연구회의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보기에 조선문학 즉 조선어로 쓰이기 시작한 우리의 근대문학은 “삼십년밖에 안 되는”, “빈약하고 무력한” 문학이다.⁴¹⁾ 따라서 조선문학이 문학다운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의 민중들과 식자들이 ‘세계적 명작(고전)’을 통해 예술적 감흥을 느끼고 학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외국의 문학작품은 일국이 내세울 자랑스러운 그 나라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짙게 깔려 있었다. 따라서 “조선문학의 근대적 배경에 직접간접의 육과 혈의 요소를 기여한” 것은 근대 이전의 전통 문화가 아닌 “풍부하게 누적되어 있는 서구 문학”일 수밖에 없다.⁴²⁾ 그렇기에 외국 작가의 ‘백년제’를 조선에서도 세계와 동시에 그

41) 이현구(1934), 「조선문학은 어대로 (1)」, 『동아일보』, 1934. 1. 1.

리고 ‘유기적 조직적’으로 거행함은 단지 “부르주아적 회고적 유희”가 아닌, 세계 문화유산에의 참여이자 우리 근대문화를 위한 실천인 것이다.⁴³⁾ 그리고 이들의 이런 기획과 참여 의지는 괴테 사후 백년제에서 또한 한 번 결실을 보게 되는데, 1932년 3월 22일 괴테의 기일에 맞추어 연이어 나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괴테 백년제 기념 특집면이 그것이다. 괴테 특집은 이 기획이 일개인의 학식이나 취향을 뽐내는 장이 아니라 집단적 노력과 조직에 의해 공들여 준비된 것임을 한눈에 보여준다.

『동아일보』 4면을 통틀어 꾸민 괴테 특집면에는 가장 앞에 괴테 ‘최후의 초상’을 배치하고 프랑크푸르트의 생가 사진, 이태리여행 중의 괴테 사진, 『시민의 의무』라는 시의 육필 사진에 괴테의 묘지 사진까지 자료 사진이 다양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또 자투리 공간들에는 「애수», 「유쾌한 뱃길», 「충고」 등 괴테의 단시가 박용철, 서항석 등에 의해 번역되어 있고, 상세한 괴테의 연표, 괴테 어록도 하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문학연구회의 독문학 전공자들인 서항석, 김진섭, 조희순의 글이 지면을 채우고 있으며,⁴⁴⁾ 마지막으로 이들이 주도하는 ‘괴테의 밤’이 열릴 예정이라는 예고기사가 실려 있다.⁴⁵⁾ 다음 날 1면에는 톨스토이 때와

- 42) 윤고종(1934), 「문학유산문제와 해외문학파의 임무」, 『동아일보』, 1934. 2. 8.
- 43) 이헌구는 카프 비평가 철우(임화)가 「소위 해외문학파의 임무와 정체」(『조선지광』 2, 1932. 2)라는 글에서 (해외문학파의) 문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소부르인텔리의 하는 짓’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론으로 「문학유산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견해」(『동아일보』, 1932. 3. 10.)를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독일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문예비평가인 프란츠 메링카가 “일생을 독일 고전 작가와 프롤레타리아를 접근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전을 연구하는 것이 비진보적 비현대적인 일이 아님을 역설한다.
- 44) 서항석(1932), 「獨逸의 世界的詩聖 괴테의 經歷과 作品」(1932. 3. 22~4. 2 연재); 김진섭(1932), 「현자 괴테」; 조희순(1932), 「괴테의 희곡에 나타난 정치, 사회사상」((1932. 3. 22~24. 연재).
- 45) 백년제 기념 회합 예고 기사는 “괴테의 생활 및 예술에 관한 담화를 주로 하고 특히 빅타-회사의 제공하는 괴테에 관한 레코-도 ‘에그몬트서곡’, ‘가극 파우스트’, ‘가극 미논’, ‘마왕’ 등을 껴서 세계적문호의 백년제다음게 하로밤을 보내리라”고

마찬가지로 백년제 관련 사설이 실렸는데, 제목은 「괴테百年祭 — 藝術的獨逸의代表者」였다. 1면 사설에 저 먼 나라의 작가 괴테의 백년제가 등장한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설 마지막 대목을 인용해 본다.



[그림 3] 괴테 백년제 기념 『동아일보』 특집면.

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문화생장의 필수적 환경의 개척을 힘쓸 것이요 개인으로는 위대한 작가의 출현을 대망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괴테여 어서 나오라.

사설이 하고자 했던 말은 제일 마지막 한 문장, “조선의 괴테여 어서 나오라”에 집약되어 있다. 1928년 톨스토이 탄생 백주년 기념 사설에서는 볼 수 없는 목소리이다. 1928년 당시의 사설은 우리 조선인들이 어찌서 저 노국의 톨스토이를 기념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문하며 이렇게 답하고 있다.

쓰고 있다.

톨스토이의 사상이나 문학이 현금 우리 조선에서 그다지 김흔 근저는 가지지 못하여 소위 ‘톨스토이안’은 적어서 무력하다고 ‘톨스토이안’으로 그의 생탄 백년제를 기념치는 안는다할지라도 일개인의 문학이나 주의사상이 전민중 전국가에 얼마나 큰 영광을 주는 것만이라도 정초(定礎)하고 생각할 것인가 한다.

조선에서 백년제를 기념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문학이나 주의사상이 전민중 전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⁴⁶⁾ 알 수 있게 해주며, “민족성과 민족어에 依하여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호상교환함”⁴⁷⁾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조선의 문호, 조선의 걸작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다. 사실 당시 일본에서 괴테협회를 결성하여 괴테연감, 백년제 기념 연구서가 출간되고 괴테전집이 기획되는 등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것에 비한다면⁴⁸⁾ 이러한 시도는 소략한 감이 있다. 그러나 한층밖에 되지 않는 조선의 외국문학전공자들로서는 기념사업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던 것이고, 또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한 사례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호의 백년제라는 형식이 조선에서 갖는 의의와 효용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 학예 뉴스’, ‘외국 동향 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이 기념행사에 동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외국문화와 문

46) 「톨스토이 생탄 백년기념」(사설), 『동아일보』, 1928. 9. 10.

47) 「괴테百年祭 — 藝術的 獨逸의 代表者」(사설), 『동아일보』, 1932. 3. 23.

48) 『ゲーテ年鑑』, 日本ゲーテ協會 編, 東京: 南江堂書店, 1932; 『ゲーテ研究: 百年祭記念』, 日独文化協會 編, 岩波書店, 1932 일본의 괴테 백년제 관련해서는 김미지(2018),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괴테 수용과 ‘베르테르’ 번역 비교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7, p. 352 참조.

학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되문게 되는 또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었던 때문이다. 괴테 백년제가 있는 3년 뒤 1935년에 빅토르 위고 사후 50년을 기념하는 회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합의 후기에도 이 질문은 등장한다.

지난 이십이일 유고의 사후 오십년을 기념하는 회합이 있었다. 근래 더욱 적막을 느끼는 우리의 문예계에 있어서 적이 한 큰 화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거사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뒤의 소식이 둔무함을 보면 아마 이 회합이 단지 순간의 화화(火花)에 지나고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우리가 어떤 사상가나 문호를 그의 기일을 당하여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오십이라든가 백이라든가의 숫자에 매혹을 느껴서 하는 바가 아니요 그 사상가나 문호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것’을 우리의 세대와 관련하여서 더욱 우리의 ‘지금과 이곳’에 필요요적절한 한에 있어서 재비판하여 섭취하는 데에 있어서뿐 유의의한 것이다. ‘복고’를 위하여서가 아니라야 하며 엑소틱한 애호이어서도 안된다. (...) 적어도 문단인이라고 하는 이들, 유고 기념의 회합에서 논의된 바를 더욱 전개시킬 생각은 없는가?⁴⁹⁾

위 글의 필자는 오십이나 백이라는 숫자에 매혹당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문호를 기념하는 의미는 오직 ‘지금 이곳’의 우리 세대와 관련하여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가에 한해서만 성립될 수 있을 뿐, 그것이 ‘복고’라든지 ‘엑소틱한 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꽤 날카롭게 지적한다.

사실 1932년의 괴테 백년제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특집을 채운 이들이 거의 동일인들일 정도로 네댓 명의 독일 문학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선편을 쥐고 모든 것을 기획한 행사인 데 반해, 빅토르

49) 「유고 — 記念의其後」, 『동아일보』, 1935. 6. 1.



[그림 4] 빅토르 위고 사후 50주년 기념 『동아일보』 특집면(1935. 5. 22).

위고 기념회합의 경우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문인이 스무 명이 넘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⁵⁰⁾ 다른 말로 하면 1935년경에는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백년제’(오십년제)라는 형식이 조선에 완전히 안착한 모양새인 것이다.

그런데 ‘백년제’라는 기념의식 또는 의례에 나타난 이러한 서양 중심주의, 서양문학 편향성은 그것이 가장 활발했던 1930년대 중반 새로운 질문을 촉발한다. 곧 1935년은 다산 정약용의 사후 백년이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실과 1935년이라는 시점이 만나면서 ‘다산 逝世백년제’라는 기획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잡지 『삼천리』의 지면에 20세기 들어 거의 처음으로 ‘근대의 우리 문호’

50) 1935년 5월 22일 오후 다섯 시 경성 시내 백합원에서 열린 “유고의 밤” 행사의 발기인은 이광수, 변영로, 김동환, 정인보, 정지용, 박용철, 박광양, 모윤숙, 함대훈, 김억, 이태준, 이하운, 김상용, 주요한, 김기림, 정인섭, 이은상, 오희병, 조희순, 이현구, 서항석이다(『유고의밤』을開催 文壇諸氏發起로 百合園에서, 『동아일보』, 1935. 5. 22).

라는 장문의 기획 논문이 실린 때이기도 했다. 이때 현상훈, 안재홍, 유광렬 세 명의 필자가 각각 꼽은 우리 문호는 농암 김창협(및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국초 이인직이다. 신소설 작가이자 근대 언론인인 이인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대 문호’라는 제목과 조선시대의 문인 사상가들의 조합은 매우 낯설고도 신선하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조합의 탄생이 가능해진 것일까?

우선 1935년 『조선일보』의 다산 백년제 기념 특집을 살펴보자. 안재홍의 논문으로 채워진 특집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대에 빛나는 위업’, ‘서구정통경제학적 정책’, ‘민주주의자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표현이다. 말하자면 다산의 현재적 의의란 그가 선취한 현대성, 서구의 사상과 비견되는 그의 현대성에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특집에서도 비슷한 어조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西來의 문명을 검쳐 잡은 宏石(굉석)”⁵¹⁾, “공상적인 XX(공산-인용자)주의적 경제이론의 맹아형태”(백남운)⁵²⁾라는 표현들이 그것이다. 이는 당시 다산의 사상이 조선학의 주창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서구적 근대와 조선적 전통(맹아)을 결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발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안재홍은 1936년 『삼천리』에 게재한 「다산의 사상과 문장」이라는 글에서도 똑같은 태도로 다산의 사상 세계를 서술한다. 이 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산의 저작들을 서양의 ‘루이스 모건(모건-인용자)의 『고대사회』’, ‘에밀 르土的 『민약론』’과 방불하며 유사하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⁵³⁾ 그는 다산을 “조선이 가졌든 최대학자”이며 “사상 학식의 점에서는 근세 조선의 유일인”이라고 칭송하는 데에서 나아가 “근대 국민주의의 선구자”임을 내세운다.⁵⁴⁾ 심지어 다산의 『田論』에서 보이는 사

51) 「丁茶山先生逝世百年을 記念하면서」(사설), 『동아일보』, 1935. 7. 16.

52) 백남운, 「丁茶山의 思想」, 『동아일보』, 1935. 7. 16.

53) 안재홍(1936), 「근대의 우리 문호 — 다산의 사상과 문장」, 『삼천리』, 1936. 4, p. 333.

54) 안재홍(1936), pp. 330-331.

상의 일부는 “일종의 국가적 인 사회민주주의의 명백한 사상체계를 방불케”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⁵⁵⁾ 이 역시 다산을 최대한 서구 근대 사상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그 반열에 합류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실학’을 발명하고 전유한⁵⁶⁾ ‘내재적 발전론’의 선구라고도 볼 수 있는 안재홍은 이후에도 「천대되는 조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다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글에서 다산을 러시아 시인 푸쉬킨과도 대비한 적이 있거니와⁵⁷⁾ 이러한 태도는 적잖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다산 서세 백년제로 돌아가 보자. 다음은 『동아일보』 학예부에서 이를 기념해 주최한 강연회 예고 기사 일부이다.



[그림 5] 다산 서세 백년제 기념 특집, 『조선일보』, 1935. 7. 16.

종래로 제외국의 석학이나 문호의 생,사후 백년 또는 오십년을 기념한 일은 여러번 있었으나 우리사상 큰 족적을 남긴 어른들을 위하여 간소한 기념회합이나마 가진일이 적었던 것은 매우 유감되는 일이다.

이제 우리 근세의 석학이오 사상가인 다산정약용선생의 서세백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조그마한 특집을 내거니와 다산선생의 학

55) 안재홍(1936), p. 332.

56) 노관범(2018),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참조.

57) 안재홍(1935), 「천대되는 조선」, 『조선일보』, 1935. 10. 2~5.

문과 사상은 금일에도 오히려 그 존재의의를 발견하리만치 현대와 상통하는 점이 만히 잇으므로 차제에 선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욱 널리 깊이 또 새로이 함이 필요할 것을 인하여 본사에서는 학예부주최로 오는 이십일(토) 오후 칠시반부터 본사 삼층 홀에서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사는 다산선생의 사상학문에 대한 조예가 남달리 깊은 사계의 권위 정인보, 백남운, 현상운 삼씨로서 다산선생의 경력과 학문과 사상을 강술하는 동시에 그 현대적 의의를 천명하여 크게 계발함이 있을줄 믿는다.⁵⁸⁾

다산 서세 백년제의 의의는 첫째로 외국의 문호를 기리는 데에서 나아가 또는 벗어나 ‘우리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긴 어른들’을 기념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다산의 사상은 ‘현대와 상통하는 점이 많은’ 고로 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널리 깊이 또 새로이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양문인 일색으로 이루어졌던 ‘백년제’라는 형식으로 다산을 기념하려는 시도, 특히 서양의 근대 문호들과 일대일로 맞대응시키거나 비교하는 태도는 일부 지식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남천과 전원배(田元培) 두 사람이 각각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⁵⁹⁾, 「賤待되는朝鮮에 對한 是非」⁶⁰⁾라는 글로 안재홍의 「천대되는 조선」을 반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 백년제’를 ‘푸쉬킨 백년제’에 빗대어 취급하고 있는 안재홍의 논지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전원배의 글에서 확인해 보자.

58) 「本社學藝部主催로 記念講演會開催」, 『동아일보』, 1935. 7. 16.

59) 김남천(1935),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 『조선중앙일보』, 1935. 10. 18~27.

60) 전원배(1935), 「문단시감(5) — 賤待되는朝鮮에 對한 是非」, 『동아일보』, 1935. 11. 15.

안재홍씨는 “역사적 구실과 및 그 현대적 가치를 재음미 신인식 운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유산의 현대적 계승방법에 대하여 좀더 반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 씨가 러시아 문호 ‘루슈킨’(푸쉬킨의 오기-인용자)을 예로 들어 정다산의 역사적 가치를 동일시한 점에 대하여는 자못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싸베-트 러시아’에서는 루슈킨을 분석검토할 필요를 느끼는 현실적 조건이 이미 해결되어 그 ‘백년기’를 성대히 거행할 준비를 하게된 역사적 단계에 이르렀으며 … 정다산의 역사적 의의를 분석 비판 파악하는 대신에 ‘싸베트 러시아’의 루슈킨 기념제를 모방하여 축제 소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원배는 한마디로 ‘역사적 유산의 현대적 계승 방법’에 대한 성찰이 먼저이며, 푸쉬킨 백년제를 모방하여 다산 백년제를 거행함은 아무런 역사적 현실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한낱 ‘축제 소동’에 불과하리라고 일침을 가한다. 앞서 김남천은 안재홍의 태도에 대해 “그들(다산과 충무공-인용자)의 옷자락 뒤에 숨어서 아옹을 하고 잇는 치기에 찬 비열한 연정(戀情)”에 불과하다고 거친 혹평을 내놓기도 했던 터이다. 서양 문호의 백년제를 기념하는 온갖 행사들이 동시대에의 참여 또는 근대적인 문학 운동을 명분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과 달리, 우리 전통 유산을 소환하여 기념하는 일은 그 분명한 근거와 현재적 의의라는 명분을 요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년제라는 형식을 통해 과거 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의 현대적 계승 방법을 성찰하려는 입장과, 먼저 그 전통의 현재적 의의(유무)를 규명하고 그에 입각해서 과거를 불러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또 그 시대가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 되면서 근대와 전통을 이분법으로 가르고 둘 사이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당대 문화를 지배했다. 어찌면 서양 문호들의 백년제를 모방하고 추종하기 바빴던 십여 년의 시간 이후, ‘우리의 전통 유산’에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은폐된 질문들과 갈

등이 ‘다산’과 ‘백년제’의 접합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년제’ 즉 백주년 기념행사들 가운데 특히 서양의 19세기 문호들의 탄생 또는 서거 백주년이라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 당대의 미디어 및 문학 장의 움직임을 살펴본 것이다. 1920년대부터 신문잡지 미디어에서는 서양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조명되었던 서양의 인물들 특히 작가들의 백년제 관련 기사들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처음에는 먼 나라의 소식 즉 외신 뉴스, 해외 동정 보도의 형식이었던 것이 점차 한국에서도 세계와 동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 기획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을 주도한 것은 1920년대 후반 동경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외국문학연구회의 회원들 즉 해외문화파였다. 이들은 톨스토이 백년제(1928), 괴테 백년제(1932)를 꽤 성실하고 진지하게 또 주체적으로 기획 준비 실행하였고, 이를 문예의 일반적 보급이라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여겼다. 서양 문호들을 조선에서 기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에는 아직 문호로 불릴 만한 조선어문학이 없고 그 작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유산으로 흡수해야 하는 것은 자국의 전통문화가 아닌 인류의 문화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 1935년 빅토르 위고 50년제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소수 전문가들의 계몽적인 기획을 넘어서 전 문단적 행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전통 문사 지식인의 서세 백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조선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은 다산 정약용이었다. 1935년 다산 서세 백년을 맞이해 고전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마련된 이 기획은 조선시대 인물과 백년제라는 근대적 형식의 결합이 낳는 낯섦 외에도 ‘우리 전통 유산의 현대적 의의’라

는 물음을 남겨놓았다. 우리 근대문화와 서양의 19세기가 훨씬 더 가깝다는(가까워야 한다는) 인식은 서양 문호들에 대한 백년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으나, 전통 인물을 현대에 불러내려는 시도는 그 현대적 정합성을 의심받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과 양자 사이의 단절 인식이 뚜렷했던 우리 근대 초기에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들 사이의 은폐되고 봉인된 갈등이 ‘백년제’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한국고전종합DB,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조선지광』, 『별건곤』, 『삼천리』.
- 톨스토이 탄생 백년제 특집, 『동아일보』, 1928. 9. 10, 13.
- 괴테 사후 백년제 특집, 『동아일보』, 『조선일보』, 1932. 3. 22~4.
- 위고 사후 50년 특집, 『동아일보』, 1935. 5. 22~4.
- 다산 逝世 백년제 특집, 『동아일보』, 1935. 7. 16.
- 『官報』(日本), 1888.
- 『十二文豪』 1~12卷, 号外 5卷, 民友社, 1893~1905.
- 『ゲーテ年鑑』, 日本ゲーテ協会 編, 東京: 南江堂書店, 1932.
- 『ゲーテ研究: 百年祭記念』, 日独文化協会 編, 岩波書店, 1932.

【논 제】

- 김남천(1935), 「조선은 과연 누가 천대하는가?」, 『조선중앙일보』, 1935. 10. 18~27.
- 김미지(2018),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괴테 수용과 ‘베르테르’ 번역 비교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67.
- _____(2017),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들의 관계 고찰」, 『인문과학』 11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진섭(1932), 「현자 괴테」, 『동아일보』, 1932. 3. 22.
- 김태준(1930), 「조선소설사」, 『동아일보』, 1930. 10. 31~1931. 2. 25.
- 노관범(2018),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 박숙자(2012), 『속물 교양의 탄생』, 푸른역사.
- 박정규(1997), 「『독립신문』 외신기사의 뉴스원과 속보성 연구」, 『사회과학논총』 17,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백남운(1935), 「丁茶山의 思想」, 『동아일보』, 1935. 7. 16.
- 서항석(1932), 「獨逸의 世界的 詩聖 괴테의 經歷과 作品」, 『동아일보』, 1932. 3. 22~4. 2.
- 안재홍(1936), 「근대의 우리 문호 — 다산의 사상과 문장」, 『삼천리』, 1936. 4.

- _____(1935), 「천대되는 조선」, 『조선일보』, 1935. 10. 2~5.
- 이하윤(1928), 「톨스토이 탄생백년」(1), (2), 『동아일보』, 1928. 9. 2~3.
- 이헌구(1934), 「조선문학은 어대로 (1)」, 『동아일보』, 1934. 1. 1.
- _____(1932), 「문학유산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견해」, 『동아일보』, 1932. 3. 10.
- 이혜령(2008), 「『동아일보』와 외국문학, 해외문학과와 미디어」, 『한국문학연구』 34.
- 임화(1936), 「해외문학과와의 의의」, 『비판』 4 (4), 1936. 6.
- 전원배(1935), 「문단시감(5) — 賤待되는朝鮮에 對한 是非」, 『동아일보』, 1935. 11. 15.
- 정인섭(1982), 「해외문학과를 전후한 외국문학의 수용」, 『광장』 111.
- _____(1928), 「두옹과 사옹극(12) — ‘센티-너리’를 마치고」, 『동아일보』, 1928. 10. 6.
- 조희순(1932), 「괴-테의 희곡에 나타난 정치, 사회사상」, 『동아일보』, 1932. 3. 22~24.
- 철우(임화)(1932), 「소위 해외문학과와의 정체와 임무」, 『조선지광』 2, 1932. 2.
- 취공(김동환)(1924), 「文學革命의 機運」, 『동아일보』, 1924. 10. 13.
- 닐 맥그리거(2014), 강미경 역,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다산초당.
- 에릭 홉스봄(1997), 이용우 역,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上, 까치.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2월 7일

계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Centenary of Literary Giants’ in the Field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Kim, Miji*

Celebrating a centenary or hundredth anniversary is a familiar event in modern times but it has no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history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beginning of the centennial celebration event (especially of modern writers) and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the ‘literary giant’ in the modern sense and in the form of a centenary.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word ‘literary giant 文豪’ was used only for western writers, especially of 19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the most proper role models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Therefore numerous names of western writers and news of their centenary appeared in modern Korean media in the 1920s. Around the 1930s, the centenary of a writer appeared as a kind of cultural project, as can be seen in the newspaper special issues for the centenaries of Tolstoy, Goethe etc. From the mid 1930s, a tendency of recall Korean traditional thinkers appeared, represented by the name ‘Joseonhak’ (朝鮮學). Scholars and the media started to commemorate the birthdays or death dates of intellectuals. Jung Yakyong (Dasan) was a typical example. Following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entenary of Dasan, the issue of recollec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features or ideas emerged. In what sense and context that the revival of tradition could be justified was a controversial issue. As a result, the project and experiment of the centenary was a process of sorts in which the idea of modern litera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and tradition was questioned.

